

WEBVTT

00:00:25.079 --> 00:00:27.510

-안녕하세요?
지식의 강주형입니다.

00:00:27.718 --> 00:00:31.234

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
순간을 마주했다면

00:00:31.334 --> 00:00:36.649

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 혹은
연인, 친구, 주변 사람에게

00:00:36.749 --> 00:00:40.134

마지막으로 어떤 말을
남기고 싶은가요?

00:00:40.234 --> 00:00:43.232

하고 싶은 말은 매일
머릿속에 가득한데

00:00:43.411 --> 00:00:47.311

막상 몇 자로 추린다고
생각하니까 참 어려워지죠.

00:00:47.411 --> 00:00:52.118

이번 시간에는 인생을
마무리하기 전 내 자취의 뜻을

00:00:52.218 --> 00:00:56.648

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자서전과
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00:00:56.748 --> 00:00:59.532

정상기 선생님 모셨습니다.
안녕하세요?

00:00:59.631 --> 00:01:01.868

-네, 안녕하십니까?
정상기입니다.

00:01:01.968 --> 00:01:03.371

-반갑습니다.

00:01:03.471 --> 00:01:07.915

사실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
자서전을 써 보라고 하면

00:01:08.015 --> 00:01:11.334

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해져요.

00:01:11.434 --> 00:01:12.843

-쉽지는 않습니다.

00:01:12.943 --> 00:01:17.644

그러나 또 실제로 써 보기 시작하면
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.

00:01:17.744 --> 00:01:22.068

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
자서전이 우리한테 주는

00:01:22.168 --> 00:01:25.965
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
할 것 같습니다.

00:01:26.065 --> 00:01:32.313
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
글로 옮겨 적은 것을

00:01:32.413 --> 00:01:33.986
전기라고 하는데요.

00:01:34.086 --> 00:01:38.621
내 인생을 나 스스로
써서 정리해보는 것을

00:01:38.759 --> 00:01:41.427
자서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1:41.527 --> 00:01:46.270
먼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

00:01:46.370 --> 00:01:49.870
자기 인식을 먼저 할 수
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.

00:01:49.959 --> 00:01:50.533
-네.

00:01:50.633 --> 00:01:54.430
-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
살아온 삶의 의미를

00:01:54.530 --> 00:01:56.734
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.

00:01:56.873 --> 00:02:01.210
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
자아를 통합하는데

00:02:01.310 --> 00:02:04.418
자서전이 갖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00:02:04.518 --> 00:02:09.165
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
찾아내고 그렇게 하여

00:02:09.265 --> 00:02:15.994
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
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

00:02:16.094 --> 00:02:21.908
갖는 것이 노년기에 가져야 할
중요한 발달 과업이 됩니다.

00:02:22.662 --> 00:02:27.019
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
소중하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

00:02:27.119 --> 00:02:30.520

인식할 필요성이
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02:31.094 --> 00:02:33.665

-자서전이 노년층에 실행할 수 있는

00:02:33.746 --> 00:02:36.539

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하셨는데요.

00:02:36.639 --> 00:02:40.332

그러면 자서전을 통해서
내가 대작을 완성하겠다.

00:02:40.432 --> 00:02:42.598

아니면 주변에 감동을 주겠다.

00:02:42.698 --> 00:02:46.312

이런 대단한 결심만 아니면
누구든 쓸 수 있겠네요?

00:02:46.412 --> 00:02:47.156

-그럼요.

00:02:47.256 --> 00:02:52.437

그런 것들은 작은 메모여도 좋고
또 우리 주위에 있는

00:02:52.537 --> 00:02:57.133

내 삶 주위에 있는 자료
하나하나를 모으다 보면

00:02:57.233 --> 00:03:00.747

거기서부터 글쓰기를 아주
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00:03:01.625 --> 00:03:04.834

-그러면 그런 자료 외에도
자서전을 쓰기 전에

00:03:04.934 --> 00:03:06.926

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?

00:03:07.026 --> 00:03:10.348

-일기를 썼다면 일기가
될 수 있겠고요.

00:03:11.049 --> 00:03:14.333

아니면 살아온 과정에
사진을 많이 찍죠?

00:03:14.449 --> 00:03:14.852

-네.

00:03:14.952 --> 00:03:19.844

-그런 사진도 좋은 자료가
되고 수첩 또는 가계부

00:03:19.944 --> 00:03:24.025

또는 내 책상 위에 있는 탁상일기.

00:03:24.125 --> 00:03:24.547
-네.

00:03:24.658 --> 00:03:29.646
-그런 것도 좋은 자료가
되고 주고받은 편지, 카드,

00:03:29.746 --> 00:03:35.197
요즘은 또 SNS 시대가 되어서
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로

00:03:35.224 --> 00:03:39.666
주고받은 그런 기록들도
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00:03:39.766 --> 00:03:43.351
-정말 생각보다 나와 관련된
사소한 것들이

00:03:43.451 --> 00:03:45.014
다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.

00:03:45.114 --> 00:03:47.255
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

00:03:47.355 --> 00:03:50.608
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
방법도 말씀해 주세요.

00:03:50.708 --> 00:03:53.745
-일단은 큰 주제를 정해야 하겠죠.

00:03:53.770 --> 00:03:54.420
-네.

00:03:54.520 --> 00:03:58.848
-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비도
넘겼고 또 이런 성취도

00:03:58.948 --> 00:04:03.630
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큰 맥락에서
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.

00:04:03.730 --> 00:04:08.980
그런 큰 맥락 하부 구조로서
그다음에 소주제를

00:04:09.152 --> 00:04:11.031
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00:04:11.131 --> 00:04:15.791
글을 쓰기 시작하려면 앞서
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

00:04:15.891 --> 00:04:18.920
일단 우리가 펼쳐놓을
필요가 있습니다.

00:04:19.020 --> 00:04:22.972
펼쳐놓다 보면 그 하나하나에는

00:04:23.072 --> 00:04:27.079

내 소중한 추억들이
다 숨어 있거든요.

00:04:27.179 --> 00:04:32.284

연대표를 작성해놓으면
내 인생을 시간별로

00:04:32.384 --> 00:04:35.824

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
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요.

00:04:35.924 --> 00:04:39.838

그다음에 가계도도 한번
그려보면 참 좋습니다.

00:04:39.938 --> 00:04:44.819

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
그 가계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

00:04:44.919 --> 00:04:47.949

나는 어떤 관계를
맺어오면서 어떤 영향을

00:04:48.049 --> 00:04:52.534

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았다,
그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죠.

00:04:52.634 --> 00:04:55.809

그다음에 내 인생 곡선을
한번 그려보면

00:04:55.909 --> 00:04:58.157

우리가 좋은 일만
있었던 것은 아니죠.

00:04:58.257 --> 00:05:01.425

앞으로를 위해서 버킷리스트를
작성해보는 것.

00:05:01.525 --> 00:05:07.656

마지막으로는 유언장이
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05:07.756 --> 00:05:10.260

-저는 유언장에 대해서
항상 궁금했던 게

00:05:10.360 --> 00:05:14.742

내가 남기고 싶은 말을 쓰고 나서
이거를 자녀나 측근한테

00:05:14.842 --> 00:05:19.001

남겨주면 그게 그냥 공식적인
유언장이 되는 건지

00:05:19.101 --> 00:05:20.755

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.

00:05:21.512 --> 00:05:25.772

-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후손들에게

00:05:25.872 --> 00:05:28.317
남긴다는 차원에서는 유언이 되죠.

00:05:28.417 --> 00:05:28.811
-네.

00:05:28.911 --> 00:05:35.263
-유언이 되지만 내가
어떤 소유물을 자손들한테

00:05:35.363 --> 00:05:40.939
남겨준다고 생각할 경우에는
법적으로 이야기하는

00:05:41.039 --> 00:05:42.744
유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.

00:05:42.844 --> 00:05:47.343
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

00:05:47.443 --> 00:05:50.844
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적인
행위가 됩니다.

00:05:50.944 --> 00:05:56.311
따라서 유언장은 법이 정한
일정한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

00:05:56.411 --> 00:05:57.809
작성해야 합니다.

00:05:57.909 --> 00:06:02.560
유언장은 만 17세 이상이면
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

00:06:02.660 --> 00:06:06.934
작성한 유언은 언제라도
철회가 가능합니다.

00:06:07.034 --> 00:06:13.741
유언장은 여러 장을 썼다 하더라도
최후에 작성한 것이 유효합니다.

00:06:14.367 --> 00:06:20.944
이 유언에 따라서 자산을 물려주는
것을 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.

00:06:21.044 --> 00:06:24.942
-쓰는 법도 정확하게 알고
있어야 정말 중요한 때

00:06:25.042 --> 00:06:27.158
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06:27.258 --> 00:06:31.838
그러면 법이 정한 유언장을
쓰는 일정한 방식이 있다면

00:06:31.938 --> 00:06:33.201
무엇이 있을까요?

00:06:33.301 --> 00:06:38.755
-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
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00:06:38.855 --> 00:06:44.393
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
자필증서가 첫 번째이고요.

00:06:44.493 --> 00:06:49.870
그다음에 증인과 함께 녹음하는
녹음증서유언이 있습니다.

00:06:49.970 --> 00:06:55.180
그다음에 공증인 앞에
증인을 같이 대동해 가서

00:06:55.227 --> 00:06:58.489
작성하는 공정증서유언이 있고요.

00:06:58.589 --> 00:07:03.072
두 명 이상의 증인을 두고
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

00:07:03.172 --> 00:07:05.999
비밀증서유언이 또 있습니다.

00:07:06.099 --> 00:07:09.518
마지막으로 구수증서가
다섯 번째입니다.

00:07:20.763 --> 00:07:24.497
-그런데 그런 공증이나 법조인
앞에서 유언을 하기에는

00:07:24.673 --> 00:07:29.039
사실 많은 분이 그렇지 않는
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

00:07:29.139 --> 00:07:32.211
결국에는 자필증서를 가장
먼저 쓸 것 같거든요.

00:07:32.311 --> 00:07:36.035
자필증서도 쓰는 그런 일정한
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.

00:07:36.135 --> 00:07:37.505
-네, 물론 그렇죠.

00:07:37.605 --> 00:07:41.060
그런데 유언장을
작성할 때 이 경우에는

00:07:41.164 --> 00:07:44.149
필수사항이 몇 가지됩니다.

00:07:44.249 --> 00:07:48.881
첫째, 유언장은 첫 글자부터
마지막 글자까지

00:07:48.981 --> 00:07:53.036
전부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
문제가 있습니다.

00:07:53.136 --> 00:07:57.772
그다음에 필수 기재사항이
이름을 써야 하고요.

00:07:57.872 --> 00:08:01.398
작성일자를 써야 하고
주소를 써야 합니다.

00:08:01.498 --> 00:08:04.346
그런 다음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.

00:08:04.446 --> 00:08:10.702
유언장 내용은 당연히 상속 등과
관련한 사항도 들어가겠고

00:08:10.802 --> 00:08:15.613
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한테
남기고 싶은 말도 들어가죠.

00:08:16.214 --> 00:08:19.790
-이렇게 우리가 유언장을
정말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가

00:08:19.890 --> 00:08:23.305
자녀들의 상속 문제를
잘 해결하기 위해서 아닐까라는

00:08:23.453 --> 00:08:24.783
생각이 들어요.

00:08:25.008 --> 00:08:30.689
-그렇죠. 사실 상속 문제는
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

00:08:30.789 --> 00:08:35.068
자칫 잘못하면 가족,
형제, 자매간의 갈등을

00:08:35.168 --> 00:08:37.676
유발하기가 참 쉽거든요.

00:08:37.776 --> 00:08:41.921
실제로 상속 관련한 법정 다툼이

00:08:42.021 --> 00:08:45.741
최근에 아주 크게
증가하고 있습니다.

00:08:45.841 --> 00:08:51.760
그것은 비단 재산이 많고
적음을 떠나서 요즘 경향이

00:08:51.860 --> 00:08:56.151
유산 나눔을 소송을
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

00:08:56.251 --> 00:09:00.704

그런 사람들의 경향이 아주 요즘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

00:09:00.804 --> 00:09:05.778
-그러면 상속이라는 거는 유언장이 꼭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걸까요?

00:09:05.946 --> 00:09:07.171
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?

00:09:07.271 --> 00:09:16.061
-상속은 망인, 즉 재산을 남겨주는 분이 망인이죠, 지금 여기서는.

00:09:16.161 --> 00:09:20.061
그걸 법률 용어로는
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.

00:09:20.161 --> 00:09:25.268
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의
사망에 의해서

00:09:25.368 --> 00:09:31.380
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가
그 자손들인 상속인에게

00:09:31.480 --> 00:09:36.285
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
상속이라고 합니다.

00:09:37.158 --> 00:09:40.564
상속은 첫째, 피상속인이
사전에 작성한

00:09:40.664 --> 00:09:43.719
유언에 따라서
이루어질 수도 있고요.

00:09:43.819 --> 00:09:50.141
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자손,
즉 상속인 간 서로 협의해서

00:09:50.229 --> 00:09:52.468
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.

00:09:52.568 --> 00:09:57.148
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
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

00:09:57.248 --> 00:10:02.030
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
상속을 하게 됩니다.

00:10:03.066 --> 00:10:06.263
-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
정말 이런 갈등을

00:10:06.363 --> 00:10:10.930
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법도
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.

00:10:11.030 --> 00:10:12.122
-그렇습니다.

00:10:12.222 --> 00:10:15.600
사망하고 난 다음에
망인이 가진 재산,

00:10:15.700 --> 00:10:21.135
즉 재산이라고 하면 자산과
부채를 모두 이야기합니다.

00:10:21.235 --> 00:10:26.447
그런 재산을 지정하는
승계인한테 양도할 수 있는

00:10:26.547 --> 00:10:32.331
방법을 정하는 원리와 규칙이
상속법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.

00:10:32.431 --> 00:10:37.693
상속법은 크게 구분해서 보면
상속은 언제 개시가 되는지

00:10:37.793 --> 00:10:41.406
상속은 어떻게 했을 때
효력을 갖게 되는지

00:10:41.506 --> 00:10:45.489
상속은 어떤 방법으로
이루어질 수 있는지

00:10:45.589 --> 00:10:48.142
그다음에 상속도 순위가 있습니다.

00:10:48.218 --> 00:10:48.758
-네.

00:10:48.858 --> 00:10:53.449
-그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
그다음에 법으로 정한

00:10:53.549 --> 00:10:57.375
법정 상속분은 어떻게
구성이 되어 있는지

00:10:57.475 --> 00:11:02.039
그다음에 상속인 간의
형평성 조정이라는

00:11:02.139 --> 00:11:03.936
그런 법률 조항도 있습니다.

00:11:04.036 --> 00:11:08.568
그다음에 유류분이라는
또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.

00:11:08.668 --> 00:11:14.782
그뿐만 아니고 상속은
승인 또는 포기하는

00:11:14.882 --> 00:11:17.934

절차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.

00:11:18.034 --> 00:11:23.491
그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
참고하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.

00:11:24.624 --> 00:11:27.853
-아무도 가볍게 볼 수 없는
내 소중한 삶,

00:11:27.953 --> 00:11:30.750
항상 옆에 있어 주는
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

00:11:30.850 --> 00:11:33.856
더욱 값져지는 것이 아닌가
생각해봅니다.

00:11:33.956 --> 00:11:37.742
일상의 여러 기억을
한 자, 한 자 기록하면서

00:11:37.842 --> 00:11:41.063
행복한 삶을 내 옆의
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

00:11:41.163 --> 00:11:43.536
다 같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?

00:11:43.636 --> 00:11:47.202
소중한 삶, 건강한 마무리
다음 시간에 뵈겠습니다.

00:11:47.302 --> 00:11:48.694
고맙습니다.